



경제 분야 호재 될까

주택 성능 등급 우수업체  
가산비율 인센티브 확대

증시 '훈풍'... 국가 신용등급 개선엔 '별로'

7년만에 다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은 경제 각 분야에도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경제계에선 정상회담이 증시에는 단기적으로 투자심리를 개선시키는 등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남북간 경제교류 활성화와 이로 인한 북진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는 물론 국가 리스크 완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제 신용평가회사들의 말처럼 국가신용등급 개선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전망이다.

◇증시 보호막 될까=남북정상회담이 미국발 신용경색 우려로 조정을 보이는 국내 증시에 보호막이 돼 줄지 주목된다.

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정상회담은 단기적으로 투자심리를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고 중장기적으로 한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외국인 직접투자 늘어날 듯  
기업들 北 진출 기회... 3대 신용평가사선 "영향 없다"

반도의 지정학적인 위험을 줄여 외국인 투자를 늘리는 효과가 있어 증시에는 호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 정상회담에서 경제협력방안이라는 것이라든가 기대감이 커 관련 종목들의 주가흐름도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코스피지수는 이날 장 초반 미국발 신용경색 우려감을 떨치지 못해 경계심리가 높았으나 남북정상회담 소식이 전해진 후 상승폭을 키워 전일 대비 43.59포인트(2.34%) 급등한 1,903.41을 기록, 9년만에 1,900선을 회복했다.

정상회담으로 경험이 활성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되며 관련 종목들도 강세를 보였다. 현대엘리

베이터(6.12%)와 현대상선(10.40%), 현대증권(3.29%) 등 현대그룹주들이 동반 강세를 보였으며 개성공단 입주업체인 신원(9.28%), 대북 송전주인 선도전기(14.94%)와 광명전기(14.68%) 등도 급등했다.

◇경협·국가리스크 완화 호재=남북교역과 개성공단으로 상징되는 남북간 경제교류의 활성화와 대외신용도 개선이 기대된다. 6차 회담에 이어 정상회담을 통해 핵문제와 군축 등에 관한 가시적 성과가 나온다면 자본시장과 외국인 직접투자에서 우리나라의 '아킬레스건'인 국가 리스크 완화라는 큰 선물을 얻게 된다.

지난 2000년 1차 정상회담 당시 4억2천만 달러였던 남북 교역은 지난해 13억5천만 달러로 3배 이상 늘었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7억2천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8.6% 늘었다.

2차 정상회담은 이런 기조를 더욱 빠르게 진행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진출기회 확대=기업들의 북한 진출 기회와 이들에 대한 금융지원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성공단에 이미 진출했거나 진출할 계획인 기업들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긴장이 완화되면 개성공단에서의 제품생산 및 남북경협이 활기를 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기관들의 기업에 대한 지원도 늘어 정상회담을 계기로 산업은행은 업체당 대출한도(50억원)를 폐지하고, 신용보증기금도 최근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특별보증제도를 도입, 시설자금의 70%이내에서 100억원까지 대출해 주기로 했다.

◇신용등급 상황은 시기상조=그러나 3대 국제 신용평가회사들은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과거는 정상회담이 한국이 처한 안보 위험을 완화시켜줄 것으로 기대되나 국가 신용등급의 상황 조정으로 이어지는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오히려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은 안보위험이 아니라 통일비용이라는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국제 신용등급 상황은 시기상조=그러나 3대 국제 신용평가회사들은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주택성능등급 우수업체에 주어지는 가산비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될 경우 주택건설업체들이 비용절감을 위해 고급자재를 사용하지 않아 주택의 품질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검토되고 있다.

8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9월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전면 시행되면 정부가 정한 가산비율에 따라 가산비를 책정하고 여기에다 택지비, 기본형건축비를 더해 분양가를 산정해야 한다.

가산비는 구조형식, 주택성능등급, 소비저탄축도 등에 따라 기본형 건축비의 일정비율이 산정되고 법정면적 초과 복리시설 설치비, 사업승인 부가조건 충족 소요비용, 시공 및 분양보증수수료 등도 인정된다.

건교부는 다른 가산항목은 그대로 유지하되 주택성능등급에 따른 가산비율은 장기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고시된 가산비율에 따르면 주택성능등급평가(160점 만점)에서 95점 이상을 받으면 지상층 건축비의 4%, 90점 이상은 3%, 85점 이상은 2%, 80점 이상은 1%를 더할 수 있다. 성능등급을 평가하는 항목은 소음·구조·환경·화재소방 등에서 20개 세부항목이다.

건교부는 장기적으로 이 비율을 상향조정할 방침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주택업체들이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값싼 자재 위주로 공사해 주택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지폐 모델 이어·이항 교체될 듯

고액권 도안 체계 조화 위해

현재 유통중인 지폐의 인물도안 가운데 일부가 수년내에 새로운 인물로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은은 2009년 상반기에 10만원, 5만원 고액권이 발행되면 현재 유통중인 3종의 지폐와 포함한 총 5종 지폐권의 전체적인 상징체계와 통일성, 조화 측면에서 불균형과 문제점이 노출될 것으로 보고 일부 지폐의 인물도안을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인물도안의 교체대상은 지난해 초 발행된 5천원권의 율곡 이이와 올해 초 발행된 1천원권의 퇴계 이황 가운데 1명 또는 2명 모두를 바꾸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참여정부 초 고액권 발행, 화폐액면단위 변경, 기존 지폐의 인물도안 교체 등의 화폐제도 개선안을 수립했으나 정부와 정치권의 반대로 기존 지폐표기와 색상을 바꾸고 위·변조 기능을 보장하는 것으로 일단락했다"면서 "뉘엿게 고액권 발행 방침이 정해져 전체 지폐도

안 체계의 통일성과 조화가 흔들리게 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고액권 발행 후 일부 지폐의 인물소재와 보조소재를 보완해 지폐도안의 상징체계도 통일성과 조화를 기해나가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고액권 초상인물 후보군 가운데 여성계를 대표한 신사임당의 경우 율곡 이이와 모자(母子)간이기에 때때로 5천원권의 인물소재로 이이를 그대로 둔 채 신사임당을 인물소재로 채택하기가 부담스럽지만 이이를 교체할 경우 이 문제가 자연스럽게 풀린다.

또 새 1만원의 보조소재가 천문과 화학 주제를 하고 있어 과학계를 대표한 별도의 인물소재를 채택하는데 상충되는 측면이 있지만 추후 보조소재의 부분적인 보완으로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 한은의 판단이다.

한은 관계자는 "위·변조 지폐의 급증으로 2006년 초 새 5천원권과 2007년 초 새 1만원, 1천원권 지폐를 발행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감원 태풍'

5월부터 임원급 이하

400명 명퇴 신청 받아

삼성전자가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임원급 이하 400여명의 중간관리자들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지역민과 지역경제에는 이번 감원 사태가 지난 2004년 이후 300여명에 달하는 자연감소인력을 충원하지 않아 생산라인 축소·축소를 샀던 삼성광주전자에도 그 여파가 미치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7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각 총괄 사업부별로 명예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명퇴신청은 1998년 1500여명,

2003년 과장급 이상 2천명을 감원조치한 이후 4년만의 일이다.

삼성전자의 경우 1999년 이후 희망퇴직 프로그램을 상시 가동하고 있는 데다, 향후 경쟁력없는 사업부출과 신수종 비즈니스 발굴 등을 위한 구조조정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 삼성광주전자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삼성광주전자 관계자는 "이번 명퇴는 수익이 나지 않은 삼성전자 연구·개발 중심단체인 수원사업장을 중심으로 진행됐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번 명퇴는 삼성광주전자와 전혀 관련이 없을 뿐 아니라 명퇴희망자도 없다"고 밝혔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미니채소 맛보세요

8일 서울 압구정동 갤러리아 식품코너에 등장한 미니채소들을 시민들이 고르고 있다. 미니 가지, 미니 파프리카 등으로 구성된 미니채소들은 배부르지 않게 고른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는 간식거리로, 이날부터 판매됐다.

/연합뉴스

가짜 기부금 영수증 소명 자료 요청

광주국세청 5,800명에 공문

가짜 연말정산용 기부금 영수증을 당국에 제출했다가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던 광주지역 직장인들에게 광주지방국세청이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나섰다.

8일 광주지방국세청에 따르면 관내 대기업인 K사를 비롯한 4개 기업체 근로자 2천700여명 등 광주지역 직장인 5천800여명이 2005~2006년 광주시에 4곳의 사찰에서 모두 1만3천여건의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사들

여 세무서에 제출, 부당하게 세금을 환급받은 것과 관련해 이들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광주국세청은 또 가짜영수증 제출 의심자가 관공서 등 다른 직장 157곳에 3천100여명 더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들 직장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통보했다. 광주국세청은 납득할 만한 소명이 이뤄지지 않은 관련자에게 대해서는 탈세금액의 5~10%를 가산세로 징수할 방침이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부라보콘·흙린볼·빠빠로...

제과업체에선 장수식품이 효자

국내 제과업계에서 출시한 지 오래된 장수제품들이 꾸준히 팔리면서 각 업체의 매출에 특목히 기여하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과자시장은 견과와 빙과를 합해 1천여개 제품에 연간 시장규모가 약 3조원대 규모로, 매년 300여개의 제품이 사라지고, 또 새로 생긴다. 그러나 이 가운데 출시 10년 이상 지난 '장수제품'의 매출 비중은 약 50% 정도로,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다. 업체별 주요 장수제품을

보면 해태제과의 경우 1970년 출시된 '부라보콘'이 여전히 월평균 27억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흙린볼'도 월 25억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1945년 첫 선을 보인 장수 히트제품인 '연양갱'도 여전히 인기를 누리면서 월평균 15억원 이상의 매출을 꾸준히 올리고 있다.

롯데제과에서는 '빠빠로'(1983년)가 월평균 33억원, '카스타드'(1989년)는 30억원, '가나초콜릿'(1976년)도 25억원에 달한다.

/연합뉴스

대선후보 7% 성장론은 '空約'

S&P "현실성 없다...내년 4.8% 성장"

이달 우리 정부와 연례회의를 앞둔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일부 한국 대선 예비후보들이 제시하고 있는 7% 성장론의 현실성에 회의적 시각을 보였다.

또 지난달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한 단계 올린 무디스와는 대조적으로, 한미FTA 타결이나 북한의 핵시설 가동 중단 등 최근의 변화가 국가 신용등급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S&P의 한국담당인 오가와 타카히

라·애 태 정부 신용평가 책임이사는 8일 연합뉴스와의 e-메일 인터뷰에서 7% 성장론과 관련, "한국 정부가 예비후보들이 제시하고 있는 7% 성장론과 같은 부작용 없이 지속가능한 거시경제 성장률을 단기내 7%대로 끌어올리기는 매우 어렵다"면서 "올해와 내년 한국경제가 각각 4.5%, 4.8%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그는 우리 경제의 단기적인 큰 위험요인으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부실문제를 지적했다. "이것이

글로벌 경제의 성장속도와 자금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중장기적 잠재위험으로는 고령화와 경제 양극화를 꼽았다. 그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한국의 총수요가 추세적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경고하고, 생산의 대기업 편중구조와 비정규직·중기·정규직·대기업·공기업간 고용조건 괴리현상을 거론하며 "다른 나라보다 시급히 정부와 민간이 함께 중소기업을 활성화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전체 고용구조와 노사관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중기청, 해외시장 개척요원 모집

광주·전남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청장 박준근)가 2007년 하반기 해외시장개척요원 양성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수출중소기업의 효율적인 해외시장 관로개척을 위해 현지 언어소통이 가능하고 해외마케팅에 자질이 우수한 중소기업 근로자를 선발한 뒤 교육을 통해 해외시장 개척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선정된 기업의 직원은 미주·유럽·브릭스(BRICs), 동남아 등 전 세계 60여개국으로 파견돼 활동하게 된다.

참여신청은 오는 24일까지 온라인(www.exportcenter)을 통해야만 가능하며, 참여자격은 최근 1년 이내에 수출실적(로컬 포함) 또는 수출계약 실적이 3만불 이상인 기업이면 가능하다. 문의의 (062)360-9190~4.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光銀, 글로벌 기업체험 탐방 이벤트 실시

광주은행은 다음달 30일까지 '글로벌 기업체험 탐방단 모집' 이벤트를 실시한다.

모집 대상자는 인터넷뱅킹, 인터넷 학자금 대출, 가상계좌를 이용한 등 특목 남부자 등 전자금융거래를 통해 광주·전남지역 대학교 등록금을 납부한 대학생이다.

광주은행은 행사기간이 끝난후 추첨을 통해 선발된 학생들에게 10월중 기아자동차와 3박4일 일정으로 일본

의 도요타자동차, MK택시를 방문하는 특전을 부여한다.

납부인원에 따라 차등 추첨하며 100명 이상 납부한 대학중에서 500명당 1명씩 추가 선발할 예정이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참가 학생들에게 해당 기업의 경영이념과 인재상에 대한 브리핑과 함께 서비스 체험연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대한조선 대표 김호총씨

대한상선 대표 오이수씨

대우그룹(회장 허재호)은 8일 대우조선 교문을 지난 김호총(55)씨를 대한조선(해남조선소) 대표이사로 발령했다. 또 오이수(40)씨를 대한상선 대표이사 겸 대한조선(여수조선소)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김 대표는 서울대 조선공학과를 나왔으며, 현대중공업에서 거쳐 대우조선해양공원에서 기술본부장·부사장 등



<김호총 대표> <오이수 대표>

을 역임했다. 오 대표는 한국해양대학을 나와 신우해운·서울마린서비스 등을 거쳐 CM중공업 대표를 역임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함께 일합시다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및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주)	엠코코리아(광주공점) 사무직(여)	초대졸/경력무관	2000~2200	08/10	062-970-8212
인원체인시스(G#)지식보충기	인강사/홍보/영업직/판매/캐시/해피콜/주최일바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8/10	062-522-3223
코스코커뮤니케이션	동아오조카 유통 퍼레이드 상하차 지게차 업무 기사	고졸/경력1년	1600~1800	08/10	02-2248-0627
남화토건(주)	정규직 안전관리 사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8/10	062-520-1051
상이네티발	정규직 차고방역원 영업사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8/11	062-652-7418
(사)광주형성산업진흥회	해외마케팅, 영업부분	대졸/경력5년	회사내규	08/13	062-945-2216
(주)노블렛	경력업무 담당 여사원	고졸/경력2년	회사내규	08/13	062-611-8213
(주)한국현대광주공장	[한국현대] R&D팀 경력사원	대졸/경력3년	회사내규	08/14	062-953-1771
(주)도원	파리버게드 MD(매너저)광주	고졸/경력무관	1600~1800	08/15	062-381-8201
중앙생명보험(주)	2007 하반기 종합금융그룹 경력/인턴사원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8/15	062-226-4904
(주)서울싸인애드	그래픽 디자이너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8/17	062-512-4779
(주)호남유통유평	배송 및 판매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8/18	062-374-9769
해원반도체(주)	LED 분야 품질관리 사원(신입,경력)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8/19	062-602-7800
대성토건(주)	건설현장 공사/공무	고졸/경력3년	회사내규	08/19	02-407-4374

(광주점코리아 512-6210 제공)